



“사고뭉치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한다”,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

- 매일경제 11월 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매일경제는 11.10일 「사고뭉치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한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새마을금고의 주요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. … 행안부와 금융위 간에 이같이 의견절충이 이루어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새마을금고 관련 현재 정부입장은,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.
-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,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담당 부처	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광용	(044-205-3941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숙	(044-205-3946)
담당 부처	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	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근	(02-2100-2993)